

## 연령통합척도 개발 및 타당성 연구

**정 순 들\***  
(이화여자대학교)

**기 지 혜**  
(이화여자대학교)

**이 은 진**  
(이화여자대학교)

**최 혜 지**  
(서울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연령통합의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이의 타당도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고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연령통합 현상을 나타내는 다차원적인 문항으로 예비문항 33개를 개발하였다. 전국의 시도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33개의 문항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하였다. 전체 문항 간 상관관계가 낮은 1개 문항을 제거한 후 32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5개 요인의 28개 문항이 최종적으로 연령통합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지역사회에서의 세대교류, 연령무관한 고용 및 사회보장제도, 연령무관한 사회참여의 기회, 가족 내 세대교류, 고령친화 인프라 등 5개 하위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연령통합척도는 연령통합의 개념을 측정하는데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후속연구를 통한 척도의 검증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요용어:** 연령통합, 척도개발, 타당도 검증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3A2055071)

\* 교신저자: 정순돌, 이화여자대학교(sdchung@ewha.ac.kr)

■ 투고일: 2015.4.30    ■ 수정일: 2015.6.8    ■ 게재확정일: 2015.6.18

## I. 서론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인구고령화와 노인인구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생산연령에 있는 인구의 감소는 우리 사회의 생산성 저하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노인인력이나 여성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막상 노인인구의 사회적 활동은 은퇴라는 사회적 제도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나이든 사람에 대한 체계적인 선입견과 이들에 대한 차별(Butler, 1987: 22; Pain, 1997에서 재인용)로서 사회에서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연령주의는 노인에게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키고 있다(Laws, 1995). 또한 노인들이 연령으로 인해 사회참여로부터 배제됨으로 인해 사회구성원 전체의 사회통합 수준은 저하되기도 한다(박경숙, 2004; 김경호, 2005). 사회통합이란 사회구성원 간 격차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웰빙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의 역량을 의미하므로(Council of Europe, 2005) 연령으로 인한 배제는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실제로 연령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기 시작한 것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부터였지만, 이러한 연령에 기초한 사회구조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김경호, 2005; Chung & Jung, 2014).

우리보다 일찍 고령화 사회를 경험한 서구사회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사회조직에서 다양한 연령층이 상호작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연령장벽의 철폐를 통해 모든 연령대의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Riley, 1998; Belsky, 1999; Riley & Riley, 2000; Uhlenberg 2000a). 이러한 논의는 세대 간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세대 간 갈등을 예방하는 중요한 사회통합의 한 개념으로도 이해되었다. 또한 기존의 생애주기에 대한 대안적 모델로 학습, 일과 여가가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전체를 통해 개인의 삶에 통합되는 연령통합모델(age integration model)이 언급되기도 하였다. Riley 외(1994)는 학습, 일과 여가가 연령에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연령통합사회’ 구조를 제시하여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역할이 생의 전 과정에 걸쳐 통합적으로 수행되는 사회모델을 제시하였다. 연령통합적 사회에서는 연령과 무관하게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개인의 욕구와 능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서 개인의 연령이 사회활동에 제한을 가할 염려가 줄어들며 자율적인 삶의 영위가 가능해진다. 한편, 연령통합사회가 특정 연령의 구성원들에게만 혜택이 치중되는 것이라 보기 어려운 것은 연령으로 인한 차별이나 배제의 문제는 성차별이나

인종차별과 달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령의 변화를 경험하며 연령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령통합에 대한 논의는 사회전체 구성원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령통합이라는 개념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정경희, 2004; 정순돌, 2013; Riley & Riley, 2000; Uhlenberg, 2000a; Chung & Jung, 2014; Chung et al., 2014) 연령통합은 사회정의의 측면이나 휴머니즘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논의되어 왔다(Cook et. al., 1994; Riley & Riley, 2000; Manheimer,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령통합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부재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도 전무한 상태이다. 다만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몇몇 도구들이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을 뿐이다(Council of Europe, 2005; WHO, 2008; UNDESA, 2010; OECD, 2014).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인력을 활용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연령과 관계없이 사회참여가 이루어지며, 세대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연령통합의 개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정경희, 2004; 김경호, 2005; 정순돌, 2013). 따라서 이러한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의 확보가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령통합을 측정하는 척도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의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령통합척도의 항목들을 구성하고, 이 척도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연령통합의 개념구성

1990년대부터 연령통합의 논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온 Riley 외(1994)는 연령통합을 사회제도 내에 들어가고 나오는 과정의 연령장벽을 없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생활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연령통합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Riley 외(1994)는 연령통합의 개념구성으로 '연령유연성(age flexibility)'과

‘연령다양성(age heterogeneity)’을 제시하였다. ‘연령유연성(age flexibility)’은 개인의 생애주기 발달에 있어서 사회구조와 제도에 진입하거나 퇴장하는 것이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열려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연령이 고용, 교육 등과 같은 사회참여에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연령으로 인한 차별 없이 누구나 사회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부여된다는 개념이다(Riley & Riley 2000). 다음으로 ‘연령다양성(age heterogeneity)’은 동시대 사회에 다양한 연령대가 존재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즉 서로 다른 다양한 연령대가 어우러져 가족이나 지역사회 등에서 교류함으로써 연대감이 형성되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사회를 의미한다(Foner, 2000; Riley & Riley, 2000; Uhlenberg, 2000b). 결과적으로 연령통합의 사회는 연령이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령과 무관한 사회(age-irrelevant society)가 되며, 이는 사람들이 인생의 어느 시기에서든지 어떤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사회를 말한다(정경희, 2004; Belsky, 1999).

실제로 연령통합의 두 개념구성인 ‘연령다양성’과 ‘연령유연성’은 이론적 발달에 앞서 실제 사회현상으로 다양한 세팅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제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가족 안에서 다양한 연령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교육제도에서도 이미 ‘평생(lifelong)’의 개념이 등장하면서(Eklund, 1969), 연령과 관계 없이 평생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있다. 결국 연령통합은 가족이라는 장소와 교육이라는 제도 속에서 구현되고 있음(김경호, 2005; Riley, 1998; Belsky, 1999; Loscoco, 2000; Uhlenberg, 2000b; Reitzes & Mutran, 2004)에도 이 개념에 대한 측정 등의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우리보다 먼저 연령통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서구의 경우 ‘연령유연성’이 ‘연령다양성’보다 더 활발하게 제시되어왔다(Riley & Riley 2000). 연령통합에 대한 담론의 발전에 있어서 전자의 논의가 연구자들의 더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기존의 연령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논의가 연령주의, 연령차별, 연령갈등, 연령규범 등과 같이 연령장벽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정기원, 2001; 박경숙, 2004; 원영희, 2004; 김주현, 2012; Laws, 1995; Hagestad & Uhlenberg, 2006; Chung & Jung, 201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령통합의 대해 합의된 개념은 없으나 문헌고찰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연령통합은 연령유연성과 연령다양성의 두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연령유연성은 노동, 교육, 사회보장 등 사회제도의 진입과 퇴장에 있어서 연령을 진입장벽으로 만들지 않는 유연성에 대한 인식이다. 둘째, 연령

다양성은 다양한 사회시스템 즉, 가족이나 지역사회 등에서 연령과 관계없이 다양한 세대가 교류하는 상호작용성에 대한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 2. 연령통합의 측정

실제로 지금까지 연령통합의 측정도구가 사용되거나 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 개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연령통합의 논의를 선구적으로 이끌어온 Riley(1998) 역시 이 개념에 대한 측정도구를 언급한 바 없다. 따라서 실제로 연령통합은 아니지만, 연령주의나 연령차별, 또는 사회통합과 같은 유사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 도구들을 찾아 보고, 이러한 도구들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으며, 연령통합의 측정에 기여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였다.

먼저 나이 들어감을 이유로 사회적 차별이 일어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령주의를 측정하는 척도개발 연구들이 있다(김주현, 2012; Plamore, 2001; Cerry & Palmore, 2008). 가장 대표적으로 Palmore(2001)가 Ageism Survey 연구를 통해 노인에 대해 갖는 편견과 차별의 내용으로 구성된 연령주의를 측정하는 20개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60세 이상 노인 84명을 대상으로 신뢰도, 문항 타당도를 검토하여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 척도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이 경험하는 노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다른 연령층의 생각은 측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Cherry와 Palmore(2008)는 고령자에 대한 평가척도를 개발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개인이 자기보고하도록 하여 연령주의적 행동의 빈도와 유형을 측정하였다. 고령자에 대한 연령주의적 행동의 빈도와 유형을 나타내는 문항을 중심으로 최종적으로 6개의 긍정적인 연령주의, 14개의 부정적인 연령주의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여 대학생, 고령자, 대학의 교직원 등 남성 100명과 여성 214명, 총 314명을 대상으로 척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 척도는 다양한 개인이 인식하는 고령자에 대한 차별을 측정한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차별철폐를 위한 대안 등의 제시는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한편, 연령통합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않지만 갈등을 최소화하고 통합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사회통합의 정도나 형평성 등을 측정하거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개발과 관련한 연구들이 있다. 먼저 유럽의 Council of Europe(2005)은 ‘Concerted development of

social cohesion indicators - Methodological guide' 보고서를 통해 사회통합의 근간이 되는 사회응집력을 다음의 4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이용가능한 자원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 다양성을 고려한 인간 존엄성 존중, 개인 및 집단의 자율성, 책임감 있는 지역사회 참여 등으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형평성과 관련된 지표들을 살펴볼 수 있다. 연령통합에 대한 기존 논의들이 개인이 사회참여와 활동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차별받지 않음을 강조한다고 볼 때 형평성도 연령통합과 관련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OECD List of Social Indicators'를 발간해 오고 있는데(Berger-Schmitt & Jankowitsch, 1999), 이 중 형평성 지표를 살펴보면 주로 경제적 자원과 기회에 대한 접근성, 분배 등으로 구별하여 측정 범주를 제시하고 있다. 형평성에는 재정적 형평성과 더불어 가사분담이나 케어와 관련된 형평성 등도 포함되지만, 실질적인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현재까지는 재정적 부분에 상당부분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형평성과 관련된 사회적 상황지표로 빈곤, 소득불평등, 저임금노동, 성별임금격차, 세대 간 이전, 주거비용 등이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연령통합에 대한 측정도구 개발은 전무했으며 사회통합의 정도를 살펴보는 연구와 보고서가 발표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대명 외(2010)의 사회통합상태 지표, 이현주 외(2011)의 지역별 사회통합지표의 구성 등을 들 수 있다(강신욱 외, 2012에서 재인용). 노대명 외(2010)는 사회통합을 동등한 기회와 물질불평등의 최소화라고 정의하며 소득, 고용, 금융, 교육, 건강, 주거, 가족연계망 등 7개 영역에서 21개 사회통합 지표를 개발하고 제안하였다. 여기서 나타난 사회통합 지표체계는 사회통합 상태지표와 사회통합 조건지표로 구분된다. 먼저 상태지표는 사람의 마음상태를 나타내는 신뢰, 소속감, 정체성 등의 주관적 측면과 행동으로 표출되는 사회참여, 자원봉사, 기부, 정치 참여 등 객관적 요소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조건지표는 소득, 고용, 교육, 건강 주거 등 물질적 환경요인과 가족, 금융, 정보(인터넷활용)등 비물질적 환경요인으로 표현된다. 노대명 외(2010)의 연구가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을 중심으로 지표를 개발한 것이라면 이현주 외(2011)가 개발한 지역별 사회통합지표는 우리나라의 각 지역별 사회통합 정도를 비교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려는 중앙정부의 노력을 진전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 지표는 구체적으로 각 지역별 안정성, 형평성, 지속 가능성, 응집성에 초점을 두고 사회통합을 측정하였다.

국내외 연구를 종합해 보면 노인 또는 고령자에 대한 차별, 편견, 태도 등을 측정하는 도구와 이를 보완하려는 연구들이 연령통합과 유사한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때때로 연령은 하나의 지표로서 한 사회의 통합정도를 살펴보는 데 사용되었을 뿐 연령통합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개발은 거의 시도된 바가 없다.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연령이 더 이상 사회참여의 장벽이 되지 않으며 세대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령에 따른 사회참여 기회와 세대 간 교류에 수준에 대한 인식을 우선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령통합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척도 개발절차 및 문항개발 과정

먼저 연령통합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본 연구의 과정은 선행연구(Bollen, 1989; Hinkin, 1995; Kline, 2006)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첫째, 문헌고찰을 통해 연령통합의 개념구성요소들을 찾고, 이 요소들에 대한 진술문 작성을 통해 척도예비 문항을 개발하였다. 둘째, 개발된 예비문항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표면타당도 검증을 실시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예비문항들이 문헌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개념 구성요소로 묶이는지 확인하였다. 셋째,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나타난 요인들에 대한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척도문항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은 문헌연구와 포커스그룹 인터뷰 진행 후 문항을 최종 선정하는 순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연령통합의 개념과 철학적 배경과 관련이 있는 진술문들을 추출하였다. 문헌은 연령통합뿐만 아니라 연령주의, 연령갈등, 연령차별 등을 연구한 국외문헌 30편, 국내문헌 13편을 살펴보고, 연구자들이 논의하고 있는 연령통합의 개념, 철학적 기반, 사회적 기능 등의 논의를 살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각 영역별 진술문들을 나열하고 공통된 진술들은 합치는 과정을 거쳐 총 123개의 예비 문항을 구성하였다. 문항에 제시된 현상은 연령통합의 논의를 시작한 Riley 외(1994)의 연령유연성(age flexibility)과 연령다양성(age heterogeneity)의 두 가지 개념구성을 활용하여 전반적 삶의 측면, 가구 및 가족의 구성형태, 주거형태,

교통시설의 이용, 여가문화관련, 대중매체, 지역사회환경, 교육, 노동시장, 근로조건, 사회보장, 제도의 영역에서 연령통합의 구체적 현상을 나타내는 것들이었다.

둘째,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서베이를 실시하여 사회복지와 노년학 관련 전문가들 31명에게 문항의 적절성, 즉 표면타당도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1차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 10명에게 문항적합도 검사를 위한 의견을 취합하였다. 2차 서베이에서는 1차 포커스그룹 인터뷰 집단에 21명을 추가하여 총 31명에게 문항 진술문에 대한 동의정도와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였다. 중복되는 내용을 제거하고 질문의 명확성, 이해가능성 등을 검토하였으며 각 진술문에 대해 동의정도가 낮은 문항은 제거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리된 예비문항이 58문항이었다.

셋째, 이렇게 구성된 58개의 문항에 대해 국내외 사회통합 관련 지표개발 문헌에 나타난 기준항목을 참고하여 구성영역의 적절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ouncil of Europe(2005)에서 발간한 'Concerted development of social cohesion indicators - Methodological guide'에서 제시한 고용, 소득, 주거, 보건, 식품안전과 소비, 교육, 정보, 문화 등 삶의 영역 8개 항목과 '사회통합지수 개발연구(강신욱 외, 2012: 38)'에서 국내외 사회통합 관련 지수 검토를 위해 언급된 소득, 고용, 주거, 교육, 건강 및 의료 등의 항목을 참고하여 검토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33개의 문항이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한 연령통합척도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척도문항은 설문지를 통해 연령통합수준에 대한 동의하는 정도 즉, 인식정도를 측정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총 33개의 개별 문항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 2.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최종 구성된 연령통합척도의 타당화 연구는 서베이를 설계되었다. 조사대상자는 서울을 포함한 7개의 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와 8개의 도 지역(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만 45세 이상 성인 남녀로 비확률표본추출방법인 할당표집방법을 사용하여 표집하였다. 45세 이상의 집단을 선택한 이유는 이들 세대가 일, 교육, 여가를 모두 경험했기 때문에 질문에 응답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이었다. 조사대상 추출을 위해 먼저 15개의 시도를 동 및 읍면지역으로 분리한 뒤, 각 행정구역을 인구크기로 정렬하여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조사대상지역을 선정하였다. 표본설계에 활용한 모집단은 2014년 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자료 중 45세 이상 성인의 인구수 자료이며, 이를 기반으로 총 15개의 시도별, 연령, 성별로 층화하여 표본 할당 및 조사대상을 추출하였다. 성별로는 남녀 각각 350명, 연령은 45~64세 중년층, 65세 이상 노년층으로 구분하여 각각 300명, 400명 할당표집하였다. 자료수집은 2014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훈련된 전문조사원에 의하여 사전교육 후 1:1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대상 가구는 조사원이 방문한 지역의 읍면동 사무소를 중심으로 첫번째 집을 기준 오른쪽 혹은 왼쪽 인접가구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만일 가구방문을 통해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없는 경우 다음 가구에 방문하거나 인근지역의 대상자를 찾아 조사를 진행하였다. 단, 조사대상자가 1가구에 여러 명이 있는 경우 생일법을 적용하여 생일이 가장 빠른 가구원을 선정하여 작성하였다. 분석시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동 지역은 대도시 응답자료로, 8개 시·도·동 지역은 중소도시 응답자료로, 8개 시·도 읍면지역은 농촌지역의 조사자료로 활용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총 700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데이터의 적합성 검증을 위하여 33개 문항에 대한 각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탐색적 차원과 검증적 차원에서 실시하였다(Hinkin, 1995). 첫째, 탐색적 차원에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척도의 개념구성요인을 찾았다. 각각의 문항들이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KMO와 Bartlett 검정을 실시한 후(Snedecor & Cochran, 1989), 최종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을 위해 주성분분석과 직교회전법을 사용하였다. 둘째,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추출된 요인들이 연령통합 척도 개념구성에 적합한지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노형진, 2014; Kline, 2005). 한편, 척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할 때 전체 샘플을 무작위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이순목, 2000). A집단(N=348)은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되었으며, B집단(N=352)은 확인적 요인분석에 사용되었다. 끝으로 개발된 척도의 상관관계와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에는 SPSS 18.0과 AMOS 20.0을 사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과 여성 각각 350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61.3세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86.7%였으며, 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8.7%로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상태는 평균 3.00, 주관적 건강상태는 3.24, 평균교육연수는 11.0년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구분	전체(명)	구성비(%)
성별	남성	350	50.0
	여성	350	50.0
연령 (M: 61.3세)	45~64세	300	42.9
	65세 이상	400	57.1
혼인상태	유배우	607	86.7
	무배우	93	13.3
직업유무	있음	411	58.7
	없음	289	41.3
주관적 경제상태 (M: 3.00)	매우 나쁘다	11	1.6
	나쁘다	123	17.6
	보통	424	60.6
	좋다	137	19.6
	매우 좋다	5	0.7
주관적 건강상태 (M: 3.24)	매우 나쁘다	6	0.9
	나쁘다	101	14.4
	보통	326	46.6
	좋다	253	36.1
	매우 좋다	14	2.0
교육연수 (M: 11.0년)	0년	9	1.3
	1~6년	104	14.9
	7~9년	153	21.9
	10~12년	282	40.3
	13~16년	143	20.4
	17년 이상	9	1.3

## 2. 문항분석

조사대상자간의 변별력 기능이 약한 문항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은 정상분포에서 벗어나 편중된 반응을 보이는 경우이다. 따라서 문항개발을 통해 구성된 33개 각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첨도, 왜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결과 각 문항은 정상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간 내적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각 문항은 전체구성개념의 하위문항으로 전체문항과 각 문항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야 한다. 분석결과 상관관계가 낮으며 유의미하지 않은 28번 문항(나이가 많으면 퇴직한다)이 삭제되었다. 이후 연령을 통제하기 위하여 연령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았으나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탐색적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진행하였다.

표 2. 문항분석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A1. 교육, 일, 여가를 연령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	2.84	.91	.13	-.88
A2. 조부모, 자녀, 손자녀 세대가 함께 어울리며 시간을 보낸다.	2.69	.90	.25	-.24
A3. 노부모와 자녀 세대 간에 경제적, 물질적 자원들을 더 주고받는다.	2.96	.81	-.05	-.18
A4. 노인은 가족 안에서 정서적으로 소외되지 않는다.	2.89	.84	-.08	-.34
A5. 조부모부터 손자녀 세대까지 다세대가 함께 살거나 인근에 산다.	2.71	.97	.15	-.59
A6. 노인들이 살기 편하도록 개조된 주택들이 많이 지어진다.	2.93	.93	-.04	-.89
A7. 나이가 들어서도 활동적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지역사회 환경이 만들어진다.	3.12	.94	-.35	-.32
A8. 노인들의 주거 공간이 젊은 세대들과 따로 구별되지 않고 마련된다.	3.09	.91	.03	-.29
A9. 대중교통 이용시 경로우대석과 경로할인제도가 유지된다.	3.58	.88	-.45	.04
A10.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대중교통 체계가 이루어진다.	3.31	.89	-.21	-.26
A11.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3.04	.91	-.10	-.51
A12. 대중 매체에서 노인이 주인공인 또는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3.03	.87	-.14	-.39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A13.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가 있다.	2.85	.95	-.03	-.58
A14. 연령과 상관없이 취미활동을 할 수 있다.	3.17	.90	-.23	-.39
A15. 연령과 관계없이 인터넷, 정보 등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이 가능하다.	3.14	.93	-.25	-.37
A16. 동호회 또는 친목모임들이 어린 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이루어진다.	2.95	.96	.01	-.49
A17. 노인과 젊은이들이 서로 이해하고 함께 어울린다.	2.90	.89	-.17	-.33
A18. 노인과 젊은 세대들이 서로의 가치관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3.04	.83	-.13	-.24
A19. 노년기에도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19	.90	-.16	-.34
A20. 노년기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봉사를 한다.	3.11	.83	-.12	-.40
A21. 한 교실/강의실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공부한다.	2.59	.92	.40	-.32
A22. 연령이 아닌 개인의 능력에 따라 교육기회가 주어진다.	2.95	.92	-.09	-.46
A23. 나이와 상관없이 개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3.27	.94	-.32	-.41
A24. 대학들은 중년층 이상을 위한 다양한 학습 기회와 수업들을 제공한다.	2.95	.98	-.20	-.66
A25. 고용주 입장에서 고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피고용자의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능력이나 경력만 고려한다.	2.86	.92	-.07	-.52
A26. 나이와 상관없이 개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2.70	1.00	-.04	-.94
A27. 연령이 아닌 개인의 능력에 따라 승진 기회가 주어진다.	2.94	.95	-.20	-.53
A28. 나이가 많으면 퇴직한다.	3.73	.96	-.58	-.03
A29. 일터에서 젊은이와 노인 간에 지식, 기술, 경험을 함께 공유한다.	3.11	.88	-.12	-.44
A30.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에서 세대간 불평등이 감소한다.	3.06	.82	-.23	-.41
A31. 젊은이와 노인들 모두 공평하게 국가로부터 소득보장을 제공받는다.	2.86	.96	-.17	-.65
A32. 연령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다.	3.30	.88	-.31	-.25
A33. 연령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다.	3.15	.83	-.16	-.10

### 3.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총 32개 문항의 연령통합 척도 하위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A 집단(N=348)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실시하였다. 데이터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KMO와 Bartlett 검정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KMO 측도는 0.886로 높았으며 Bartlett 검정의 카이제곱은 3114.810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KMO=0.886, Chi-square=3114.810, df=378,  $p<0.001$ ).

32개의 예비문항에 대해 A 집단(N=348)을 활용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탐색적 요인분석 진행에 앞서 문항 14, 문항 23, 문항 26의 내용과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된 문항 1(교육, 일, 여가를 연령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과 문항 7, 문항 8의 내용과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된 문항 6(노인들이 살기 편하도록 개조된 주택들이 많이 지어진다.)을 삭제한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진행 결과 요인부하량 값이 .40 이하로 나타난 문항 14와 문항 22를 제거한 후 최종 탐색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eigen value) 1 이상 요인이 5개일 때 가장 적합한 주요성분이 추출되었다. 요인 1에는 문항 7, 문항 11, 문항 12, 문항 13, 문항 16, 문항 17, 문항 18, 문항 21 등 총 8개 문항이 적재되었다. 문항 내용은 지역사회 내 문화활동, 여가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유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 가치관 등이 있다는 문항들로 설명변량은 14.01%이다. 요인 1은 '지역사회에서의 세대교류'로 명명하였다.

요인 2에는 문항 25, 문항 26, 문항 27, 문항 29, 문항 30, 문항 31, 문항 32, 문항 33 등 총 8개 문항이 적재되었다. 문항 내용은 연령차별 없이 고용의 기회가 주어지며 사회서비스, 의료서비스, 소득보장, 사회보장 세대 간 불평등 감소에 대한 문항들로 설명변량은 11.91%이다. 요인 2는 '연령무관한 고용 및 사회보장제도'로 명명하였다.

요인 3에는 문항 19, 문항 20, 문항 23, 문항 24 등 총 4개 문항이 적재되었다. 문항 내용은 연령차별이 없이 정치, 자원봉사, 교육 및 학습의 기회가 있다는 문항들로 설명변량은 8.56%이다. 요인 3은 '연령무관한 사회참여기회'로 명명하였다.

요인 4에는 문항 2, 문항 3, 문항 4, 문항 5 등 총 4개 문항이 적재되었다. 문항 내용은 다양한 연령대의 가족 구성원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거나 소외되지 않고, 자원을 주고받는 것, 함께 거주하거나 인근에 거주하는 것 등에 대한 문항들로 설명변량은 8.04%이다. 요인 4는 '가족 내 세대교류'로 명명하였다.

요인 5에는 문항 8, 문항 9, 문항 10, 문항 15 등 총 4개 문항이 적재되었다. 문항

내용은 연령차별 없이 교통 및 인터넷, 주거공간 제공에 대한 문항들로 설명변량은 7.45%이다. 요인 5는 '고령친화 인프라'로 명명하였다.

표 3.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성분				
	1	2	3	4	5
A12. 대중 매체에서 노인이 주인공인 또는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689	.118	.020	.124	.216
A17. 노인과 젊은이들이 서로 이해하고 함께 어울린다.	.683	.046	.244	.180	.046
A13.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가 있다.	.674	.205	.103	.135	.086
A16. 동호회 또는 친목모임들이 어린 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이루어진다.	.657	.123	.096	.017	.277
A11.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577	.071	.221	.218	.255
A18. 노인과 젊은 세대들이 서로의 가치관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563	.019	.461	.133	.105
A7. 나이가 들어서도 활동적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지역사회 환경이 만들어진다.	.469	.360	.144	.311	.077
A21. 한 교실/강의실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공부한다.	.445	.206	.118	.255	-.296
A32. 연령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다.	.014	.701	.030	-.048	.287
A31. 젊은이와 노인들 모두 공평하게 국가로부터 소득보장을 제공받는다.	.220	.659	.022	.044	.003
A33. 연령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다.	.011	.637	.143	.109	.310
A30.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에서 세대간 불평등이 감소한다.	.035	.614	.084	.234	.060
A26. 나이와 상관없이 개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390	.534	.312	-.023	-.273
A25. 고용주 입장에서 고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피고용자의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능력이나 경력만을 고려한다.	.330	.504	.183	.215	-.198

문항	성분				
	1	2	3	4	5
A29. 일터에서 젊은이와 노인 간에 지식, 기술, 경험을 함께 공유한다.	.210	.492	.164	.021	.047
A27. 연령이 아닌 개인의 능력에 따라 승진 기회가 주어진다.	.024	.490	.342	.228	.049
A19. 노년기에도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19	.042	.737	.129	.259
A24. 대학들은 중년층 이상을 위한 다양한 학습 기회와 수업들을 제공한다.	.138	.259	.670	.123	.102
A23. 나이와 상관없이 개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192	.306	.571	-.036	.132
A20. 노년기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봉사를 한다.	.356	.148	.495	.132	-.021
A3. 노부모와 자녀 세대 간에 경제적, 물질적 자원들을 더 주고받는다.	.115	.114	.141	.707	.054
A4. 노인은 가족 안에서 정서적으로 소외되지 않는다.	.250	.036	-.061	.644	-.056
A2. 조부모, 자녀, 손자녀 세대가 함께 어울리며 시간을 보낸다.	.183	.018	.207	.628	.199
A5. 조부모부터 손자녀 세대까지 다세대가 함께 살거나 인근에 산다.	.060	.201	.059	.579	.169
A9. 대중교통 이용 시 경로우대석과 경로할인 제도가 유지된다.	.107	.053	.154	.095	.730
A10.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대중교통 체계가 이루어진다.	.235	.148	.191	.187	.578
A8. 노인들의 주거 공간이 젊은 세대들과 따로 구별되지 않고 마련된다.	.397	.147	.076	.224	.497
A15. 연령과 관계없이 인터넷, 정보 등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이 가능하다.	.370	.262	.133	-.019	.445
요인고유근	3.92	3.34	2.40	2.25	2.09
설명변량	14.01	11.91	8.56	8.04	7.45
Cronbach's $\alpha$	.83	.79	.70	.64	.68

#### 4. 확인적 요인분석

A 집단(N=348)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제시된 28개 문항 5개 요인에 대한 연구모형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B 집단(N=352)을 통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하여 요인적재량을 추정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CFA)은 단일차원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찾아내어 제거하는 것으로 적합도를 평가하는 지수에 여러 가지가 있다. 절대적합도지수(GFI, AGFI, RMSEA), 증분적합도지수(NFI, CFI, TLI), 간결적합도지수(PGFI, PNFI, PCFI, AIC)로 분류한다. CFI와 TLI는 .90이상이면 우수하고, RMSEA는 .08이하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해석한다(Bollen 1989; McDonald & Ho 2002; Sun 2005). 총 28개 문항으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들이 수용할 만하며, 요인계수 또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750.734(p=.000)$ ,  $df=340$ ,  $\chi^2/df=2.21$ ,  $CFI=0.90$ ,  $TLI=0.84$ ,  $RMSEA=0.06$ 으로 수용할만한 적합성을 보여주었다.

표 4. 연령통합 척도 모형 적합도

모형	CMIN/DF	CFI	TLI	RMSEA
모형	2.21	0.90	0.84	0.06

또한 [그림 1]을 통하여 각각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을 고려하였을 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p<.001$ ) 추가적으로 제거할 항목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들을 통하여 측정모형이 잠재변수를 잘 설명해주고 있으며, 구성타당도가 확보되었음을 검증하였다.

구성타당도가 확보된 모형의 5개 하위요인의 총 28개 문항에 대한 하위 요인간의 상관관계는 <표 5>와 같다. ‘지역사회에서의 세대교류’, ‘연령무관한 고용 및 사회보장제도’, ‘연령무관한 사회참여기회’, ‘가족 내 세대교류’, ‘고령친화 인프라와 연령통합 총점 사이의 상관계수는 각각 0.872( $p<.01$ ), 0.818( $p<.01$ ), 0.759( $p<.01$ ), 0.664( $p<.01$ ), 0.704( $p<.01$ )로 나타났다. 연령통합의 다섯 개 요인은 연령통합의 총점과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것은 연령통합의 내적 구조에 대한 가정 즉 연령통합이 ‘지역



사회에서의 세대교류, '연령무관한 고용 및 사회보장제도', '연령무관한 사회참여기회', '가족 내 세대교류', '고령친화 인프라'의 다섯 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는 가정을 지지한다(성태제, 2002).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825로 나타났다. 요인 1의 신뢰도는 .831, 요인 2의 신뢰도는 .791, 요인 3의 신뢰도는 .700, 요인 4의 신뢰도는 .638, 요인 5의 신뢰도는 .67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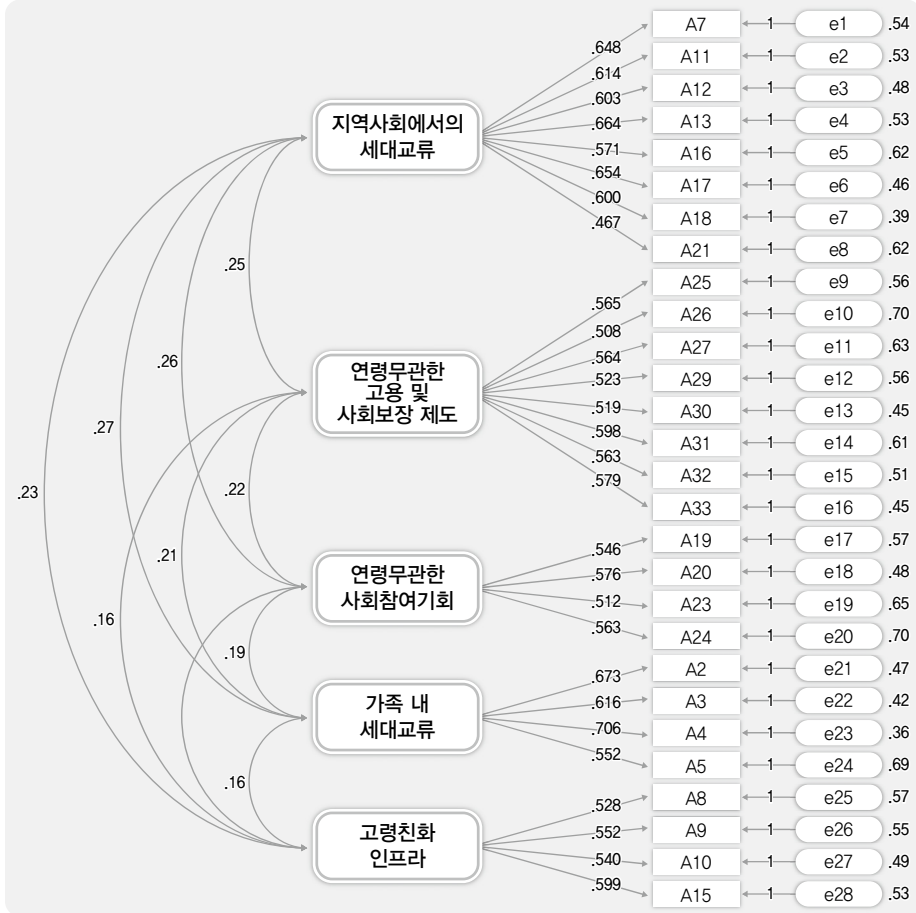
본 연구 결과에서 척도의 최종 요인구조를 살펴보면, 5개의 하위 요인 중 고령친화 인프라 요인을 제외한 4개 요인은 앞서 문헌검토에서 살펴 본 연령통합개념구성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유연성의 측면에서 연령무관한 고용 및 사회보장제도, 연령무관한 사회참여기회 등이 나타났으며, 연령다양성의 측면에서 지역사회에서의 세대교류, 가족 내 세대교류 등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추가된 연령통합의 개념 중 고령친화 인프라는 최근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지역 사회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 역시 연령통합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한꺼번에 나타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척도는 연령통합의 개념구성을 잘 나타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연령통합 척도 하위요인간 상관관계

	지역사회에서의 세대교류	연령무관한 고용 및 사회보장제도	연령무관한 사회참여기회	가족 내 세대교류	고령친화 인프라
지역사회에서의 세대교류	1.00				
연령무관한 고용 및 사회보장제도	0.568**	1.00			
연령무관한 사회참여기회	0.582**	0.563**	1.00		
가족 내 세대교류	0.517**	0.423**	0.381**	1.00	
고령친화 인프라	0.556**	0.438**	0.485**	0.373**	1.00
총점	0.872**	0.818**	0.759**	0.664**	0.704**

\*\*  $p < .01$

그림 1. 연령통합 척도 구성타당도 분석 결과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연령통합의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척도의 타당화를 검증하는데 있다. 국내의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연령통합의 논의를 선구적으로 이끌어 온 Riley 외(1994)의 연령유연성과 연령다양성의 두 가지 개념구성과 다양한 세팅에서 나타나는 연령통합의 현상을 활용하여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와 전문가 서베이를 통해 연령통합의 현상을 나타내는 내용의 척도문항을 개발하여 이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최종적으로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28개 문항이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내적 신뢰도, 문항간 상관관계, 구성타당도 검증에서 척도의 안정성, 타당성, 그리고 문항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여 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결과가 갖는 함의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 개발된 연령통합척도는 연령통합의 개념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연령통합의 개념으로 Riley(1998)가 제시한 연령유연성과 연령다양성의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유연성의 측면에서 ‘연령무관한 사회참여기회’ ‘연령무관한 고용 및 사회보장제도’ 등이 나타났으며, 연령다양성의 측면에서 ‘지역사회에서의 세대교류’, ‘가족 내 세대교류’ 등이 나타났다. 특히 연령통합의 하위범주들이 연령과 관계없이 고용이나 서비스, 사회참여, 세대교류 등에 참여할 기회와 혜택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Riley et al., 1994; Riley et al., 1999; Uhlenberg, 2000b)이 제시하는 개념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4개의 요소 외에 본 연구에서 새롭게 추가된 연령통합의 개념으로 ‘고령친화적 인프라’는 WHO의 ‘고령친화도시’에 근접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즉 모든 연령의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며 노인을 우대하고 존중하는 도시를 의미하는데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중요성이 강조된다. 결국 노인에게 편리하면 모든 연령에게 편리한 도시가 되므로 연령통합의 두 측면인 연령유연성과 다양성을 인프라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척도는 선행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제시된 연령통합의 개념구성이 탐색적 전략과 확인적 전략을 사용한 분석을 통해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연령통합척도는 새로운 사회의 패러다임으로 논의되는 연령통합의 수준을 경험적 차원에서 측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 연령통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Riley, 1994; Attias-Donfut, 2000; Foner, 2000; Uhlenberg, 2000a) 고령사회를 일찍 경험한 서구에서도 아직까지 연령통합의 정도를 측정하는 시도나 척도 개발과 관련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국내에서도 담론 차원에서만 연령통합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 연구를 통해 연령통합의 개념을 경험적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특히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이므로 앞으로 이 척도를 사용한

연구를 통해 연령통합의 수준을 측정해 보고, 연령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선행요인이나 전제조건을 확인하여 연령통합수준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차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의 영역부터 가족차원과 개인의 삶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거시적인 수준에서 미시적인 수준으로 각 영역에서 연령통합에 기반을 둔 제도와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무작위에 의해 추출되기 보다는 45세 이상 응답자를 의도적 할당표집을 통해 표집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둘째, 연령통합이라는 개념을 측정하는 타당성이 입증된 기존의 척도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와 비교하여 결과를 제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여러 집단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를 타당화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된 연령 통합척도는 연령통합의 개념을 경험적 차원에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최초로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정순들은 미국 텍사스주립대(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인의 심리사회적 안녕, 노인 가족, 노후준비, 사례관리이며, 현재 연령통합, 고령사회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sdchung@ewha.ac.kr)

이은진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관심분야는 노인복지, 조사방법론 등이며, 현재 활동적 노화, 고령화 사회의 연령통합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dream-jin7@hanmail.net)

기지혜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관심분야는 노인복지, 여성복지, 고령사회, 인구통계이며, 현재 연령통합 사회를 연구하고 있다.

(E-mail: jeehk413@gmail.com)

최혜지는 미국 워싱턴대학교(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고령화, 다양성, 이동성, 사회조사이다. 현재 연령통합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E-mail: hjchoi@swu.ac.kr)

## 참고문헌

---

- 강신욱, 이현주, 김석호, 박수진, 박은경(2012). *사회통합지수 개발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경호(2005). 연령통합의 관점에서 고찰한 노인복지관련 실정법상 연령기준의 정책적 함의. *한국법정정책학회* 5(1), pp.553-582.
- 김주현(2012). 연령주의(Ageism) 척도의 개발 및 타당성 연구. *한국인구학*, 35(1), pp.53-75.
- 노대명, 강신욱, 전지현(2010). *한국 사회통합지표 연구* 사회통합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형진(2014). *SPSS를 활용한 주성분분석과 요인분석*. 서울: 한울.
- 박경숙(2004). *연령주의 사회와 법.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 서울대학교 BK21 법학 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2차 학술대회자료집.
- 성태제(2002). *타당도와 신뢰도*. 서울: 학지사.
- 원영희(2004). 노인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4(1), pp.187-206.
- 이순묵(2000). *요인분석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이현주, 강신욱, 전지현, 박수진(2011). *사회통합지표의 지역단위 적용방안 연구*, 차미숙 편,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적 대응과제: 지역 사회통합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국토연구원  
pp.134-151.
- 정경희(2004). 인구고령화와 연령통합 사회. *사회연구*, 5(1), pp.11-26.
- 정순돌(2013). 가족과 지역사회에서의 연령통합. *제3차 고령사회포럼*, pp.53-85.
- 정기원(2001). 노부모와 별거 성인자녀와의 가족유대: 정서적 지원에 대한 교환이론적 접근. *한국인구학*, 24(1), pp.123-148.
- Attias-Donfut, C. (2000). Cultural and Economic Transfers Between Generations: One Aspect of Age Integration. *The Gerontologist*, 40(3), pp.270-272.
- Belsky, J. (1999). *The Psychology of Aging: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s 3rd ed.*, CA : Brooks/Cole Pub. Co.
- Berger-Schmitt, R., Jankowitsch, B.(1999). *Systems of Social Indicators and Social Reporting: The State of the Art. EuReporting Working Paper No.1*, Center for Survey Research and Methodology (ZUMA) Mannheim.
- Bollen, K. A. (1989).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1st ed, New York: Wiley.
- Butler, R. N. (1987). *Encyclopaedia of ageing*. New York: Springer.

- Cherry, K. E., Palmore, E. B. (2008). Relating to Older People Evaluation(ROPE): A measure of self - reported ageism. *Educational Gerontology*, 34, pp.849 - 861.
- Chung, S., Jung, Y. (2014). Age norms for older adults among Koreans: perceptions and influencing factors. *Ageing & Society*, 34(8), pp.1335-1355.
- Chung, S., Ki, J., Lee, E., Lee, L., Jeong, J., Park, N. (2014, November). *Understanding of age integration: A delphi study*.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f Ageing and Society. Manchester, United Kingdom.
- Council of Europe (2005). *Concerted development of social cohesion indicators. Methodological guide*.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Cook, F. L., Marshall, V. W., Marshall J. G., Kaufman, J. E. (1994). The salience of intergenerational equity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In T. M. Marmor, T. M. Smeeding, & V. L. Greene (Eds.), *Economic security and intergenerational justice: A look at North America*.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Press. pp.91-129.
- Eklund, L. (1969). Aging and the field of education. In M. W. Riley, J. W. Riley, M. E. Johnson (Eds.), *Aging and Society*. Vol. 7,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pp.324-351.
- Foner, A. (2000). Age integration or age conflict as society ages? *The Gerontologist*, 40(3), pp.272-276.
- Hagestad, G., Uhlenberg, P. (2006). Should we be concerned about age segregation? Some theoretical and empirical explorations. *Research on Aging*, 28(6), pp.638-653.
- Hinkin, T. R. (1995). A preview of scale development practices in the study of organization. *Journal of Management*, 21(5), pp.967-988.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2nd ed) NY: Guilford Press.
- Laws, G. (1995). Understanding ageism: Lessons from feminism and postmodernism. *The Gerontologist*, 35(1), pp.112-118.
- Loscocco, K. (2000). Age integration as a solution to work-family conflict, *The Gerontologist*, 40(3), pp.292-300.

- Manheimer, R. (2007). Allocating Resources for Lifelong Learning for Older Adults. In R. A. Pruchno & M. A. Smye(Eds.), *Challenges of an Aging Society: Ethical Dilemmas, Political Sues*. Marylan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p.217-237.
- McDonald, R. P., Ho, M. R. (2002). Principles and practice in reporting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7(1), pp.64-82.
- OECD (2014). *Society at a Glance*. <http://www.oecd.org>. 2015.4.13. 인출.
- Pain, R. H. (1997). 'Old age' and ageism in urban research: the case of fear of crime.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1(1), pp.117-128.
- Palmore E. B. (2001). The Ageism Survey: First findings. *The Gerontologist*, 41(5), pp.572-575.
- Reitzes, D. C., Mutran, E. J. (2004). Grandparent Identity, Intergenerational Family Identity, and Well-Being.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9(4), pp.213-219.
- Riley, M. W., Kahn, L. R., Fone, A. (1994). *Age and Structural Lag: Society's Failure to Provide Meaningful Opportunities in Work, Family, and Leisure*. NY: Wiley.
- Riley, M. W.(1998) *The Hidden Age Revolution: Emergent Integration of All Ages*. Policy Brief. NY: Syracuse University.
- Riley, M. W., Foner, A., Riley J. W. Jr. (1999). The aging and society paradigm. In V. L. Bengtson & K. W. Schaie (Eds.), *Handbook of Theories of Aging*. Springer Publishing Company, Inc. pp.327-341.
- Riley, M. W., Riley, J. W. (2000). Age integration: Conceptual and historical background. *The Gerontologist*, 40(3), pp.266-270.
- Snedecor, G. W., Cochran, W. G. (1989). *Statistical methods*. (8th ed) Iowa State Univ Press. Ames.
- Sun, J. (2005). Assessing Goodness of Fit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7, pp.240-256.
- Uhlenberg, P. (2000a). Introduction: Why study age integration? *The Gerontologist*, 40(3), pp.261-266.

- Uhlenberg, P. (2000b). Integration of old and young. *The Gerontologist*, 40(3), pp.276-279.
- UNDESA (2010). *Analysing and Measuring Social Inclusion in a Global Context*. <http://www.un.org/esa/socdev/publications>. 2015.4.15. 인출.
- WHO (2008). *Social Exclusion - Meaning, measurement and experience and links to health inequalities: WHO Social Exclusion Knowledge Network Background Paper 1*, <http://who.int>. 2015.4.15. 인출.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to Measure Age Integration

**Chung, Soondool**

(Ewha Woman University)

**Lee, Eunjin**

(Ewha Womans University)

**Ki, Jeehye**

(Ewha Womans University)

**Choi, Hye-ji**

(Seoul Women's University)

---

This study aims to develop and validate a scale to measure the concept of age integration. Literature review, Focus Group Interview and survey of experts in the area of social work and gerontology were conducted to develop 33 preliminary questions of age integration with various levels. A total of 700 people (male:350, female:350) over the age of 45 were responded to a questionnaire to validate this scal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One of the 33 questions was deleted as it was found to have low correlations with all the other questions. Through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final 32 questions, 5 factors composed of 28 items were extracted: 'cross generational interaction in community', 'age-irrelevant opportunity in the employment and benefits of social security systems', 'age-irrelevant opportunity of social participation', 'cross generational interaction with family', and 'age-friendly infrastructure'.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age integration scale developed by this study has proved valid to measure the concept of age integration. Further studies would be required to confirm the validity of the scale.

---

**Keywords:** Age Integration, Scale Development, Validation of the Scale